



# 중국 네이멍구서 흑사병 환자 발생...조기경보 발령 (종합)

기사입력 2020-07-06 12:30 최종수정 2020-07-06 19:29

몽골에 이어 발병..."동물 불법 사냥·섭취 금지"  
주중대사관 관계자 "필요시 여행주의사항 발표 예정"

코로나에 돼지독감·흑사병까지...또 중국?

연합뉴스 8,651 0



00:00 01:33

자동



장성구 기자 / 2020070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https://www.facebook.com/yonhapnews)



네이멍구 바옌나오얼(巴彥淖爾)시(빨간색 동그라미 지점)[바이두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부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는 또 다른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페스트) 환자가 발생해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네이멍구 바옌나오얼(巴彥淖爾)시 위생건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흑사병 빈발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환자는 격리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당국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발표하는 조기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비교적 심각(3급)'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이러한 동물을 지니고 전염병 발생 구역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다람쥐과 설치류의 일종인 마멋 등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것을 본 경우, 흑사병 의심환자나 원인 불명의 고열환자 및 급사한 환자를 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서 혼잡한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하고, 병원에서 진찰받거나 본인에게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발열·기침·림프절 통증·각혈·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도록 했다.



마멋[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흑사병 풍토지역인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린귀러(錫林郭勒)에서 흑사병 환자 3명이 발생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쥐벼룩 박멸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 1일 네이멍구 북서쪽에 위치한 몽골 코바도(Cobado) 지역에서도 불법 사냥한 머릿을 먹은 형제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흑사병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지난해 11월 수차례 환자가 발생했지만, 확산 없이 잘 극복했던 점, 흑사병은 치료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려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멍구는 여름 휴가지로 많이 가는 곳인 만큼 필요할 경우 여행주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cha@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차별금지법안, 성 소수자 어떤 내용?
- ▶제보하기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26700>

---